

# 소명에 이끌린 사람들

## - 콩세계과학관 건립 추진 경위

이철호

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제3기 위원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은 콩의 재배와 이용을 시작한 콩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고대사가 그랬듯이 중국 문화에 묻혀 세계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한국식품연구원 초대원장을 지낸 권태완 박사님은 2001년 한국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콩의 역사와 이용을 제대로 알리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아래는 추진위원회를 시작하면서 발표한 취지문이다.

### 한국콩박물관건립 추진 취지문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콩을 심고 먹기 시작한 민족이라는 사실이 그동안의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동북아(東北亞)에서 콩의 식용(食用)은 3천 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중국 남부와 동남아, 그리고 일본에는 기원전 3세기부터 전파(傳播)되었고, 18세기가 돼서 유럽에 소개되었으며, 세계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작물로 재배되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콩이 쌀을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보완(補完)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나, 최근 암과 심장병, 그리고 골다공증 등 성인병(成人病)을 예방하고 치유(治癒)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콩은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의 귀중한 식량자원으로서 그들의 삶을 오늘날까지 뒷받침해 왔지만, 기름이나 사료작물로 쓰던 구미(歐美)에서도 최근 식품학적 진가(眞價)를 알게되면서 콩의 직접 식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북아 기원의 콩은 그 생산이나 다양한 용도로 볼 때, 이제 세계의 작물, 세계인의 먹거리가 된 것이다.

우리 조상의 옛 터전이던 만주와 한반도에서 기원하여, 기나긴 세월을 통하여 우리 민족의 영양과 건강을 보살피고 또한 삶을 함께 해온 이 콩이 바야흐로 세계적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 21세기는 문화(文化)의 세기(世紀) 즉 문화가 나라의 양심(良心)과 역량(力量)을 가늠하는 시대이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박물관이 저마다 문화의 상징으로 여기 저기 세워져 있으나, 아직 콩 박물관은 한 군데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콩 문화의 종주국(宗主國)으로서 콩 전문박물관을 세우도록 하늘이 점지(點指)하신 일이 아니겠는가! 콩 문화와 이용기술의 중심이 될 세계적 차원의 박물관을 건립하여 우리 콩 문화를 지구촌에 널리 알리고, 콩 식품을 발전 전파함으로써 인류건강에 이바지 할 때이다.

이 박물관은 단순히 콩에 관한 옛것을 모아 보관 전시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콩 관련 자료와 문헌(文獻)을 수집 분석하고 연구하며, 국제적인 정보교류와 연구

교육의 중심이 되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인 콩 문화 과학 박물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천후 콩 재배온실, 콩 식품제조 및 가공실습실, 콩 전문 음식점등을 병설(併設)하여 콩에 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보고 배우고 생각하며 먹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 박물관은 자립형으로 운영 발전 될 것이다.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콩 박물관을 세우고자함은 암울했던 지난 20세기에 잃어버린 천년(千年)의 우리 문화를 되찾아 2천년 대를 살아갈 우리 후손(後孫)에게 선조의 슬기와 창조적 정신을 물려 주려함에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2001년 9월

한국콩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기인 : 권태완. 김석동. 김석민. 김준영. 유용환. 이철호.

이영택. 장학길. 정장섭. 정재원. 조세영. 홍은희

이 사업은 1998년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권태완, 권신한, 이철호, 홍은희 공저의 '국제규모의 콩박물관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연구'를 기초로 하여 역사적 고증과 과학적 발전을 망라하는 자료수집으로 시작되었다. 2005년 위원회는 국내 콩 관련 주요 연구자 대부분이 참여하는 '콩, 大豆, Soybean (15장 794쪽, 고려대학교출판부)' 책자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콩의 이용역사를 비롯하여 콩과 관련된 고고학적 유물, 유적, 야생콩의 분포와 재배 육종 역사, 콩의 성분과 기능성, 콩을 이용한 음식과 식단, 콩의 산업적 이용과 생산 유통 현황과 전망까지 국내외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렴한 참고서이다. 책의 목차와 집필자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머리말(권태완), 1.콩의 이용역사(이철호, 권태완), 2.선사고대유적의 콩(조현종), 3.장류문화와 토기(신숙정), 4.콩 재배역사(홍은희), 5.콩 품종과 육종(김석동, 이영호), 6.콩의 가공 특성(김우정), 7.두유 두부의 제조역사와 현황(손현수), 8.콩 발효음식(신동화, 이효지), 9.콩 발효식품의 건강기능성(박건영), 10.우리나라 콩음식들(이효지), 11.다른나라의 콩 이용 음식(조정순), 12.콩음식의 영양가와 기능성(송정자), 13.콩의 산업적 이용(지규만), 14.콩기름과 그 부산물(이경일), 15.콩의 생산 및 유통현황과 전망(조세영)

이 책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2008년 사이버 콩박물관([www.soyworld.org](http://www.soyworld.org))을 개설하였다. 콩박물관건립 부지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노력하였으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주)정식품의 고 정재원 회장이 소유한 서초동 우면산 기슭의 3천여평을 사용하기로 하고 서초구 시의회 의결을 거쳐 토목공사를 위한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파주시를 비롯해 순창 고추장마을, 안동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논의가 오갔으나, 2008년 12월 경상북도 영주시(시장 김주영)와 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회장 황인경)가 콩세계과학관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2011년 위원회는 2005년에 출판한 '콩' 책에 근거하여 콩 스토리텔링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유미경 위원이 이 일을 맡아 수행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하여 (주)시공문화가 콩세계

과학관 전시물 제작 및 설치를 맡았다. 영주시가 출원한 총 공사비 50여억 원과 문화공보부 지원금 10억 원으로 2013년 3월 박물관 건축을 착공하여 2014년 9월 박물관 건축 및 전시 설치가 준공되었다. 박물관이 건립되기까지 위원회는 100여 차례 회의를 가졌으며 각자 자비로 영주에서 하는 회의를 수없이 다녔다. 권태완 박사는 박물관 건립을 위해 4억여 원을 희사하였으며, 위원들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이르는 기부금을 자발적으로 헌납하였다. 정재원 회장님은 박물관 내에서 콩의 일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콩 생육장 시설비로 2억 원을 기탁했다. 콩세계과학관 추진연혁과 추진위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콩세계과학관 추진 연혁

- 2001.01 한국콩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위원장 권태완/사무총장 김석동)
- 2001.09 한국콩박물관 건립 검토안 발표
- 2004.01 박물관 자립운영방안에 대한 보고
- 2005.03 콩학술연구보고서 편집 및 발간편집위원회 구성(위원장 이철호)
- 2005.07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콩세계박물관 건립추진
- 2005.10 한국콩박물관추진위원회 편저[콩]출판, 고려대학교출판부
- 2006.12 콩박물관 건립기금모금 및 기금의 운용과 관리 규정의 확정
- 2006.12 2기 건립추진위원장 김석동 박사 추대(사무총장 이철호)
- 2008.04 사이버 콩세계과학관 개설(www.soyworld.org)
- 2008.12 콩세계과학관 양해각서 체결(영주시와 사단법인 한국콩연구회)
- 2008.12 콩세계과학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황종환)
- 2011.03 콩세계과학관 스토리텔링 용역 (유미경)
- 2013.01 3기 건립추진위원장 이철호박사 추대(부위원장 황인경/송희섭, 사무총장 황영현)
- 2013.02 건축설계완료(실시설계 용역납품)
- 2013.03 영주시 콩세계과학관 착공
- 2014.09 콩세계과학관 준공
- 2015.04 전시컨텐츠 감수 및 수정 완료
- 2015.04 콩세계과학관 개관

◆ 콩박물관 추진위원 명단

	제1기 (2001.5.-2006.12.)	제2기 (2007.1.-2012.12.)	제3기 (2013.1.-2015.4.)
고 문	이춘녕, 정재원	이춘녕, 정재원, 권태완, 홍은희	정재원, 권태완, 김석동(金奭東)
위원장	권태완	김석동(金奭東)	이철호
부위원장	정장섭, 홍은희	송희섭, 이철호	송희섭, 황인경
사무총장	김석동(金奭東)	이철호, 황인경	황영현
위 원	김준영, 이철호, 조세영, 김석민	송일석, 이영호, 유용환, 조세영, 김석동(金石東), 김재철, 문갑순, 황영현, 유미경	이영호, 김재철, 문갑순, 황종환, 이석하, 유미경

이러한 노력으로 2015년 4월 콩세계과학관이 영주시(시장 장옥현)에 개관되었으며, 동시에 경상북도 영주시가 발행한 콩세계과학관 도록 초판이 출판되었다. 도록 초판의 기획은 이철호, 글 유미경, 감수에는 김석동, 송희섭, 이영호, 문갑순, 황영현, 황인경 위원이 수고하였다. '콩 스토리텔링'은 2014년 경상북도 영주시에 건립된 콩세계과학관 전시 내용에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박물관 도록에 수록되었다. 2015년 '콩 스토리텔링'을 영문화 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학 대학원에서 한국문학을 전공한 다이아나 에반스(Diana Evans)씨에게 번역을 요청하여 1년여에 걸친 열정적인 작업으로 2017년 '콩 스토리텔링(Soybean Storytelling)' 국영문 합본을 도서출판 식안연에서 출판하였다. 콩세계과학관에는 한국콩정보센터(센터장 문갑순 교수)가 위치하여 콩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과 홈페이지([www.soyworld.or.kr](http://www.soyworld.or.kr))를 운영하고 있다.

콩세계과학관은 영주시가 운영하는 문화사업으로 자리 잡아 토종 자산인 우리 콩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잠재적 미래가치까지 널리 알리는 콩의 메카로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 고 권태완 박사님을 비롯하여 이 모든 일에 헌신적으로 협력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 이 일을 통해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미약하나마 시작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이 글은 경상북도 영주시가 최근(2021년 9월 30일) 발행한 콩세계과학관 상설전시도록에 수록하기 위해 작성했으나 출판 기일에 맞추지 못해 별도로 발표한다. 박물관 도록에 박물관 건설 과정에 대한 내용이 없어 추가로 기록에 남기고자 함이다.>